



발행 번호 제2013-11호
2013. 10. 18

나라사랑

발행처: (사)국학원
발행인: 장 영 주
☎ 041-620-6700
www.kookhakwon.org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167-1

단기 4346년 10. 18. 경축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10월 18일 사단법인 국학원에서는 국민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올바른 국가관을 세울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을 하였다.

CONTENTS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행사 3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경과보고 - 박용진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사무총장 5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인사말 - 장준봉 전 경향신문사 사장 / (사)국학원 상임 고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격려사 - 이수성 전 국무총리 / (사)국학원 명예총재 7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기념사 - 장영주 (사)국학원 원장 9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축사 - 최민기 천안시 의장 |
|--|---|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지금이 바로 나라사랑이 필요할때”

국학원, 10월 18일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개최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장영주)은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학원 4층 대강당과 한민족역사문화공원 야외광장에서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1부는 국학원 4층 대강당에서 이수성 전 국무총리(국학원 명예총재), 장준봉 전 경향신문사 사장(국학원 상임고문), 최민기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어 2부 행사는 참가자들이 풍물과 만장기를 앞세우고 길놀이를 하며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이 건립될 광장부지로 이동하고 주요 내외빈이 테이프 커팅 및 시삽을 하였다.

기공식에 앞서 국학원 명예총재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격려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인 가치관의 상실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 보수와 진보라는 외래 사조에 휩싸여 대립하고 분열되었다.”고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DNA 속에 잠재해 있는 홍익철학이라는 조화

와 화합 상생의 문화를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자화상을 깨버리는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의 완성” 이라고 금번 나라사랑국민교육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장영주 국학원장 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가슴이 살아나서 뚝뚝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애국심이 살아나면 양심이 살아나고 가치관이 정립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작은 나에서 큰 나를 찾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자는 나라사랑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은 국민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자 설립한다.

나라사랑 국민교육은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기본으로 구성된다. 나를 닦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실천하며, 민족의 역사와 문화, 철학을 통해 치국의 지혜를 기르고, 천지인 정신의 지구시민철학을 체득하는 과정이다. 공직자

· 청소년 · 경찰 · 군인 등 공무원, 기업체, 일반인 등 100만 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나라사랑 국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나라사랑국민교육원에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재성 전 서울신문 논설주간, 김호성 전 서울교대 총장, 박석재 전 한국천문대연구원장, 이동수 성균관 청년유도회 명예회장, 이성우 한국고전번역위원회, 이재룡 민족정신수호협의회 공동대표, 이성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여대 대표, 유용근 전 국회의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고문으로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은 사단법인 국학원 산하 단체로서 전국 16개 시도지부 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경과 보고 -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설립 과정

박용진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사무총장 박용진입니다.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설립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8월

일지 이승헌 총장 및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 박사께서 함께 민족정신광복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민족문화의 원형을 상징하는 단군은 분단된 남한과 북한이 이념을 초월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구심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논리적 윤리적 거점이 된다” 는 취지에서 단군의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흥익철학을 알리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10월

강화도 마니산 개천절 국민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매년 개천절 행사를 성대히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1997년 8월

독립기념관에서 4만5천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민족정신광복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1998년 10월

민족위기극복을 위한 국토순례대행진과 함께 한문화운동연합” 을 출범하고 효정신 회복과 민족정신회복, 그리고 민족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운동을 전개하여 1999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369기의 단군상을 학교, 공원 등에 세웠습니다.

2002년 7월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을 위하여’ 라는 일지 이승헌 총장의 설립이념에 따라 국민교육, 학술연구, 문화사업을 전개하는 국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초대 원장에 현 국학원 상임고문이신 장준봉 전 경향신문사 사장께서 취임하셨습니다.

2003년 12월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왜곡하고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였습니다. 국학원 회원들은 고구려지킴이 운동을 펼쳐 국민 120만명 서명운동, 전국순회 고구려사진전, 그리고 고구려문화기획전 등 고구려지킴이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동북공정을 규탄하였고 서명운동 127만명을 돌파하고 온 국민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4년 1월

유네스코 산하단체인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에 중국 동북공정에 항의하는 이메일 보내기 “을지문덕 온라인 프로젝트” 를 실시하여 100만명의 네티즌 참가로 유네스코 산하 이코모스(ICOMOS)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중국의 유네스코 단독 등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륙의 역사 고구려유적유물 사진 전국 순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6월

지하1층 지상 4층의 국학원 본원 건물을 완공하고 국학원 개원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단군상만 세우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국학원을 세워서 국혼을 알리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설사 부도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해야 합니다” 라는 일지 이승헌 총장과 국학회원들의 참여로 일심으로 백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국학원을 세웠습니다.

2004년 10월

유네스코 무니르 부쉬나키 사무총장보와 유네스코 산하 비정부기구(NGO)인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의 마이클 켈렛 회장 등 국제문화재 전문가들이 27일 고구려 고분은 한국 민족의 유산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1월

국방부, 건설교통부 공직자를 비롯해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로 하는 민족혼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국학 학술화를 위하여 국학포럼, 국민강좌, 국학 학술대회 등을 개최 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국립박물관 고조선 연대표 오류 시정 촉구 운동 전개 및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전국 60개 박물관의 고조선 역사 표기 바로잡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6년 5월

<한민족뿌리찾기 캠페인> 대한민국 국학정론 CD 100만인 보급운동 전개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한·중 정부간에 2004년 구두 합의한 '고구려 관련 사항을 역사 교과서 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백두산과 고조선, 발해의 역사와 한강 이북의 땅마저 중국의 역사와 영토로 기록하려는 중국의 태도를 규탄하는 제2차 동북공정 저지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7년 3월

국가 교과서에 고조선 건국을 '신화'가 아닌 '역사'로 바로 잡은 것을 축하하는 국민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5월

민족정신과 국혼을 잃어버리고서는 교육도 정치도 경제도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민족 정신을 바르게 알림으로서 한민족이 한민족 다위지고 국민이 국민다위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조 단군상과 개국 시조상, 역사 위인상, 그리고 선도인물상과 독립운동가상, 그리고 지구성인상 등을 세운 한민족역사문화공원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개천절을 맞이하여 세계최대높이(지상 33미터)의 국조단군왕검상을 세워 한민족역사문화공원 개원식과 함께 세계지구인축제를 열었습니다.

2009년 10월

한민족역사문화공원내에 한민족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천군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중국 북경의 천단공원과 일본의 이세신궁을 방문하여 친선문화 탐방을 하는 등 한민족기념관 건립을 위한 후원 및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3월

한민족역사문화공원에서 1만2천명이 참가하는 도통군자 단군문화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재정기획부의 개천절 요일제 시행 방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학 회원들이 나서서 반대 시위, 관련 부서 전화결기운동 등을 통해 개천절 요일제 시행을 반대하였습니다.

단기연호 부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천국민대축제<코리언스퍼밋 페스티벌>에 10만명이 참가하여 개천절을 축하하였습니다. 광화문에서는 개천 축하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2012년 11월

자살 증가율 세계 1위 나라의 오명과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상황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면서 얼이 빠진 교육, 얼이 빠진 정치, 얼이 빠진 경제로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취지에 “우리얼찾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얼찾기운동과 함께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8월

2차에 걸쳐 국사수능 필수과목 지정 등을 촉구하는 우리얼찾기 100만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8월27일 누계 167만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 국사수능 필수과목 지정 발표를 이끌어 냈습니다.

2013년 10월

최근 대한민국 일부 고위층의 국가관이나 역사의식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세워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는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을 세워 민족의 백년 대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민족역사문화공원내의 약 3천평 규모의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을 세우고 한민족역사문화공원을 모든 국민들이 찾아와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나라사랑 국민교육단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에 관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단기 4346년) 10월18일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사무총장

박용진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인사말 -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설립에 즈음하여

장준봉 전 경향신문사 사장 / (사)국학원 상임고문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國學院 부설, 나라사랑 國民教育院의 起工式을 祝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 최민기 천안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 이진환 충남도의원님 그리고 전용학 박사 등 전국회의원님을 비롯한 內外貴賓께 진심으로 感謝의 人事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국학원이 設立된지 십년이 되어 갑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나라사랑에 대한 熱氣속에서 그해 7월 국학원이 創立되었고 제가 初代院長으로 就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 자리에 한민족 傳統文化의 배움터인 국학원 殿堂이 開院되었습니다.

국학원은 設立者인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總長이 지난 1987년 民族精神光復 운동본부를 設立하여 展開해 온 한민족의 歷史와 일을 찾는 운동이 그 始發입니다.

국학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傳統文化인 仙道文化를 復原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學術研究 및 教育을 하는 機關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경찰, 군인, 기업 임직원, 청소년 등 10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國學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世界經濟大國으로 成長하여 先進國 대열에 合流했으며 그에 맞는 國格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완성이 되고, 國家는 國格으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價値觀과 國家觀을 확고히 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과 自矜心을 가질 때 國格은 높아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歷史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戰爭이 나거나 살기가 어려워지면 나라를 버리고 移民을 가겠다는 나약한 생각을 하는 傾向이 적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愛國心과 自矜心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 原因은 한민족의 傳統에 대한 歷史知識이 부족하고 자기의 뿌리를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誕生했는지 우리 祖上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에 대한 올바른 歷史教育의 重要性이 強調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最初에 檀君王儉이 弘益人間 理化世界라는 위대한 國家哲學을 바탕으로 建國하였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理致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國家觀을 국민에게 가르쳤고 고조선과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반만년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日帝強占期에 日帝가 우리 역사를 歪曲하고 일부 抹殺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正體性에 混亂이 생겼습니다.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光復한 지 70년이 가깝도록 올바른 歷史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슬프고 痛嘆할 일입니다.

國學院을 세워 역사와 고유의 傳統文化를 되찾고자 하였으나 아직 길은 遼遠합니다. 이에 국학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自矜心과 愛國心을 고취하고 올바른 價値觀과 國家觀을 국민들에게 가르칠 우수한 人材를 養成하고자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을 設立하였습니다.

教育은 국가의 百年大計입니다. 이 자리는 국학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養鷄場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이 개원되면 국학원과 함께 올바른 우리 歷史와 傳統文化를 널리 전파하고 우리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우수한 人材들을 輩出하는 教育機關이 될 것입니다.

이 뜻 깊은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의 起工式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內外貴賓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健康과 幸運이 함께하기를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단기4346년) 10월 18일

전 경향신문사 사장/(사)국학원 상임고문

장준봉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격려사 -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에 기대합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 (사)국학원 명예 총재

안녕하세요?

먼저 바른 국가관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되는 '나라사랑국민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동안 국혼을 되살리고자 불철주야 애를 써온 국학원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가치관의 상실로 인한 혼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많은 자산과 지식과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망망대해의 뚝단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은 사회를 양극화시켜 대한민국을 갈등과 양극의 세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가르침과 행동도 쉽게 왜곡되어져 버리고,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 빠져 버립니다.

양극화는 서로의 삶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여 마침내 아무도 남아 있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낸 후에야 멈춥니다. 우리는 지금 파국의 종착역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적, 경제적인 부의 증대만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는 개인의 선(善)이고, 도덕은 사회의 선(善), 공공의 선(善)으로 부와 도덕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은 인간성 회복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성 회복의 상생 문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상생의 문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어, 서로를 끌어올려주면서 모두가 최상의 것을 누리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채우면서도 평등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하라는 홍익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외래 사조에 휩싸인 대한민국이 아닌 DNA 속에 잠재해 있는 조화와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상(思想)의 다툼이 아닌 내 나라 내 겨레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자화상을 깨버리는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우리열찾기운동'에 참여해주신 370만명의 국민들의 소망을 안고 국학원이 그 일에 앞장서고자 '나라사랑국민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국가관 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얼씨구 대한민국,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18일

전 국무총리, 국학원 명예총재

이수성

(사)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기념사 -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이 나아갈 길

장영주 (사)국학원 원장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가치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를 지키며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가치관은 여당과 야당, 좌익과 우익이라는 가치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사람도 어떤 가치관도 대한민국을 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사회생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 인간되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혼자사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 사회생활은 인간에게 여러가지로 불편함,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쁜인 이기심을 넘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화로운 도덕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고귀한 도덕심이 애국심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고도 아무런 댓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의인,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애국심이 살아나면 양심이 살아

나고 공동체의 가치관이 정립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높이를 설정할 가치로서 나라사랑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작은 나에서 큰 나라 찾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자는 “나라사랑 국민교육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나라사랑국민교육원 설립:

이를 위해서 한민족역사문화공원내에 “나라사랑 국민교육”을 위한 약 8백평 규모의 나라사랑 교육장 및 100평 규모의 나라사랑 전시관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지상 3층의 지하 1층의 1500평 규모의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인포메이션 센터를 지어서 국내 및 해외에서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을 찾는 교육생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 나라사랑국민교육 네트워크: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지부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 산하에도 시군구 “나라사랑 국민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나라사랑 국민교육 온라인센터:

최근에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해외에서도 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강사 파견이나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을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교포 및 외국인을 위한 사이버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 나라사랑국민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과정>

청소년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그 동안 학교에서 진행해 왔던 12차시 청소년을 위한 국학 강좌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서 학년별로 “상상력과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나라사랑 마당”을 구성하고 그리스로마신화처럼 재미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이 과정이 모든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공직자 과정>

지금까지 10여년간 진행해온 공직자 교육의 경험을 모아서 공직자를 위한 “나라사랑 공직자 가치관 정립 과정” 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위 공직자 과정, 중간 공직자 과정, 일반 공직자 과정 등을 편성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과정>

매월 실시하여 지금까지 400차수 가까이 진행해온 민족혼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철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나라사랑, 나라사랑 국민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번은 참가하는 자랑스런 국민 교육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나라사랑 <여성 리더십 과정>, <부부과정>, <가족 과정>, <실버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여 국민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라사랑 국민교육 고문/자문단 구성

사회 각계 주요 인사/원로들과 전현직 고위 공직자/ 교육자 들의 분야 별 고문, 자문 역할을 통한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수들이 감수해서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국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라사랑국민교육 강사 양성:

위와 같이 정규 과정이 아닌 시간제 특강형태의 활동을 위하여 8시간 과정의 “나라사랑 국민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나라사랑 국민강사” 를 1만2천명 양성하여 국민 100만명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라사랑국민교육 펀드:

강사들이 나가서 학교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국민교육펀드” 를 만들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정신문명대국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날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소리쳐 노래 불러 봅시다!

감사합니다 .

2013년(단기 4346년) 10월18일

사단법인 국학원 원장

원암 장영주



(사) 국학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 특집

축사 - 나라사랑 국민교육원 기공식을 축하드립니다.

최민기 시의장



.사단법인 국학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애국심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알리고자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60여년 전 좌우익의 치열한 이념논쟁으로 인하여 발단이 된 6.25전쟁으로 4백만명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념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공산세력이 먼저 일으킨 것이 이미 다 만천하에 밝혀진 것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며 친북적인 정치적 성향을 꺼림낌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상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일부 남한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던 것도 현대사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남한 일각에서 일어나는 친북이나 좌파성향의 직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비인간적이고 폭력

적인 북쪽 공산세력의 잔인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일부가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것은 올바른 애국심교육 부족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익, 우익을 떠나서, 아니 그 모든 이념을 넘어서는 우리의 고유한 중심철학은 바로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나라와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홍익정신입니다.

이러한 조화와 화합정신인 홍익인간 정신교육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빠지고 극도의 개인주의 삶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민족의 중심철학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이 남북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철학으로 자리잡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나라사랑 국민교육원]이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나라사랑 애국심 교육활동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013년(단기 4346년) 10월18일

천안시의회 의장

최민기

